

30년 뒤 16개 郡 사라질 위기 ... ‘인구절벽’ 절박한 전남도

인구정책팀 신설, 출산·양육·고령화 대비 등 113건 과제 설정 20~39세 가입 여성 유입위한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 분주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자치단체가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전남도의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이 과제에 떠올랐다.

전남도는 전남지역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팀’을 정책기획관실에 신설해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113건의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등 분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출산·양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정부의 복지 우선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 저출산·고령화 심화=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만큼 인구 위기는 심각하다. 특히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데드 크로스’ 현상이 빚어진 전국 유일 무이한 광역단체다.

또한, 2014년 8월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올해 3월말 기준 인구 190만선이 붕괴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전남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초고령화·저출산 심화지역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광역단체가 자칫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인구늘리기 등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거환경·자녀 양육 및 교육여건, 문화와 여가시설 개선 등 만 20~39세 가입 여성 유입을 위한 정부-자치단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외지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절박한 심정’으로=전남도는 앞으로 5년간을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시·군과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인구 문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인구정책팀’을 정책기획관실에 신설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구정책팀은 앞으로 계층별·연령별·기관별 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며 시·군과 협력을 통해 전남에 적합한 인구문제 극복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대책을 뒷받침 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남도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 도민 인구 늘리기 추진운동본부’를 발족해 인구 문제 해결에 전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남도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최근 113건의 정책과제를 설정했다.

일자리 창출과 출산·양육,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고령화 대비 등 5개 분야 113건 과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개설·운영, 인구 늘리기 참여 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등 제도가 시행된다. 출산·양육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다자녀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자녀 꿈 키움 희망플러스 통장 개설·운영 등 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인구 유입을 위해 시·군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군 부사관급 이상 간부의 주소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주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노후 산업 단지 재생사업 등을 추진한다.

고령화 대비 차원에서 광역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고 마음 치유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시책 정책자료 결과를 반영해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 간부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 말고는 실질적 효과가 없는 등 상당수 시책이 전시성이거나 급조한 시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과 광주전남연구원 등에서 각각 발표한 전남 인구 전망에서도 30년 후 전국 84개 소멸위험지역에 전남 시 지역을 제외한 17개 군 전체가 포함되고, 2040년 도내 297개 읍면동 가운데 98개가 소멸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양동시장의 안철수 6일 4박5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광주에 ‘호남 SOC의 복원’을 약속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 SOC 예산 삭감 바로잡겠다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광주에서 지방투어 시작

“호남을 위해선 반드시 국민의당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된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광주를 찾았다. 기자들과 만난 안 대표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결같이 호남을 위해 반드시 국민의당이 있어야 한다는 존재 이유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이 조만간 국민에게도 확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5년 전부터 찬성을 했었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했던 “당선 이후 당 지지를 회복을 호남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날 대표 취임 후 첫 지방 행선지로 광주를 택한 안 대표는 호남의 중요성, 호남 예산 확보를 위한 국민의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호남 지지를 받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전략지는 당연히 호남이며, 지난해 총선 때 지지해 준 이유는 호남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가려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는 그 속제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이 지역과 공조해 인재를 영입하고 시·도 당과도 사전에 잘 조율하겠다”면서 “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 대표는 “지금은 지지율을 올리는데 무엇보다 최우선 목표이며 차근차근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은 후 선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삭감은 호남을 또 한 번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일률적인 예산 삭감 기준을 나후지역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은 호남 SOC 예산을 정상화하는데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저의 밖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며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찬성했고, 지금도 여전히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까지 마친 단계’라고 밝혀 조만간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속으로! 다시 뛰는 국민의당’을 기치로 내걸고 지방투어를 시작한 안 대표는 이날부터 8일까지 사흘간 광주에 머무른 뒤, 주말인 9~10일에는 여수·순천과 목포·무안 등 전남 일대를 방문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195) 전문

전쟁의 불안과 공포를 유머러스하게 ‘팡’

격성의 터무니없음을 폭로하였다. 화폭 두 개를 이어 붙여 만화책을 펼친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작품은 두 대의 제트기가 전투하는 결정적 찰나를 묘사하고 있다. 전투조종사의 말풍선을 통해 조종사가 발사탄추를 누르고 로켓이 하늘을 가로질러 적기를 폭격해 화염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실감 있게 ‘들러’준다. 폭격당한 전투기가 ‘팡!’하며 폭발하는 모습은 광을, 연기, 혼란의 상황을 뚜렷한 윤곽선으로 증폭시켜 유머러스하게 표현했다.

‘팡’ 이전에도 빠르게 발사되는 무기의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를 제목으로 한 작품 ‘타카타카’ (1962년 작)를 비롯해 여러 점의 ‘폭발’시리즈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몇몇 비평가는 1960년대 반전 운동과 연계해서 그의 전쟁 만화 그림을 평화주의



리히텐슈타인 작 ‘팡’

적 메시지로 이해하기도 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눈물’(1964년 작)의 작가로도 알려져 있는 리히텐슈타인은 성인 취향의 로맨스 만화와 디즈니 만화 주인공들을 대형화폭에 담아 대중이 미치고 순수예술을 조합함으로써 새로운 시각 어법을 창조했다. 또한 작가는 전통 미학에 대한 도발로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도전적이면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광주플러부장·미술사 박사〉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에 한반도 안보 위기는 물론 세계 곳곳에 전운이 감도는 듯 분위기가 흥분하다.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전쟁의 공포는 영화나 인터넷 게임처럼 구경거리나 뉴스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설마 전쟁이 나겠나 하는 안보 불감증인 것도 같아 요즘에는 외라 불안해진다.

미국 팝아트의 거장 로이 리히텐슈타인(1923~1997)은 우연히 발견한 전쟁만화에서 이미지를 차용한 작품 ‘팡(Whaam)’(1963년 작)을 통해 군사적



무안출발 일본여행

가을맞이 여행 & 추석 연휴 가족 · 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출발일 : 2017년 8월 24일(목) ~ 10월 9일(월)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7)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8/24(목) ~ 9/21(목) [매주 월, 목요일 출발]

북큐슈 펜션 실속 특가!!
9/7(목), 9/14(목) [단, 2회]
아마가세 온천 별장 2박 499,000원부터
알차게 떠나는 북큐슈 [실속] 599,000원부터

항공 3박4일
북큐슈 4일 599,000원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부터
아마구치 4일 799,000원부터
큐슈·오사카 4일 799,000원부터 [9/18(월) 단, 한번!]

선박+항공 2박3일 [단, 2회!]
9/12(화) 나가사키·군함도 499,000원부터
9/19(화) 북큐슈·벵부·시모노세키 34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 공통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상품에 따라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부터(TAX포함)

기타큐슈 추석연휴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호사랑 가족 3대 한정 특가!!!

10/1(일), 10/6(금) 단, 2회!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
*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20,000원 ※최소 4인 이상 예약가능

9/30(토)~10/9(월)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4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아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다낭·후에·호이안

베트남항공(VN)
17, 11/17(금)~18, 5/18(금)

화출발(3박4일) [실속] 699,000원부터
금출발(3박5일) [실속] 799,000원부터

다낭·후에·호이안 3박5일

티웨이항공(TW)
8/23(수)~10/29(일)

준특급 699,000원부터
특급 799,000원부터

대만 전세기 3박5일

〈무안출발〉

티웨이항공

실속 599,000원부터
품격 699,000원부터

씨엠립(캄보디아) 4박5일

〈무안출발〉

스카이잉크항공

추석 선착순 한정 특가
9/30(토) [단 1회] 1,249,000원부터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등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보통 가입(해외여행) : 여권, 국내항공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방/후방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장보험 가입 / 여행초기 기입 ◆ 예약시 계약서(약관)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입금), 기사/가이드 명세서, 선착순, 각종 비보험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